



재



미



있



는



교



리



교



안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

조현민 도마 |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학습목표

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희망을 가지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임을 안다.
2. 예수님이 주신 희망을 통해 우리도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함을 알게 한다.

시작기도

하느님의 그 사랑(이철 신부 작사·곡)

바라보기 (10분)

질문 1) 기약 없이 친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2)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때로 약속하지도 않은 채 누군가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상대가 그다지 절실하지 않다면 그저 시간을 때우면서 지내겠지요.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작업 나는 당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마음으로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들께

자신이 정말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을 펼쳐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다든지, 집을 정리한다든지, 먹을 것을 장만한다든지,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든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아보기 (25분)

질문 1)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2)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기다리던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다림은 무엇에 대한 갈망(desire)입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미래(vision)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내가 어떤 일을 하기(doing)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바라는 것(desire)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doing) 있습니까?

작업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브레인 스토밍 방법으로 원하는 것(desire)을 모두 얘기해 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갈망이 어떤 것인지 하나(둘 이하)만 고릅니다.

❖ 이번 대림 기간에 나는 ○○○한 일을 해 보고 싶다.

왜 하고 싶은가?



재



미



있



는



교



리



교



안

두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얘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 이번 대립 기간에 너와 나는 ○○○한 일을 해 보고 싶다.

네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팀이 다른 두 사람의 팀과 만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설명하고 하나의 합의점을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두 그룹이 될 때까지 나눔을 계속합니다.

❖ 이번 대립 기간에 우리는 ○○○한 일을 해 보고 싶다.

우리 고등부 또는 1학년, 2학년이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 냅니다.

❖ 이번 대립 기간에 우리 고등부(1학년 또는 2학년)는 ○○○한 일을 해 보고 싶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전개하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합니다.

선생님들께

대립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desire)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이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가르침

예수님의 갈망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큰 스타가 있어 모두들 그를 보기를 원합니다. 공연이 있는 날, 공연장 주위는 팬들로 가득차고 오빠 소리를 연호합니다. 바로 그때 그 스타가 나에게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으래?’ 하고 손을 내밀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꿈에 부풀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죄짓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절름발이, 불구자, 나병환자, 굶주리는 사람, 불쌍한 사람, 박해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 묶인 사람, 어려운 일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 천한 족속, 군중,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 맨 끝자리의 사람, 어린아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것 외에도, 위신과 명예가 없기에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삶이 고통이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십니다. 종류 계급(목수 출신)의 예수께서 친히 하류 중에서도 최하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빵을 주시고, 위로하시어 희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학자들, 랍비들, 군인들. 그 존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 준 그분이 있기에 나는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망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은 오로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은 목표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질 수 있는 수단입니다. 왜 대학에 가려는 것인지, 그래서 무엇이 되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희망이 부활이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느님이 사랑’ 이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희망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교 리 교 안

고 등 부



재



미



있



는



교



리



교



안

우리 또한 우리의 희망인 예수님임을 굳게 믿고 이를 통해 다른 친구들,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갈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기 (15분)

우리의 믿음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기말 고사가 끝나고 성탄절까지는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본당마다 행사 준비를 하느라 바쁘겠지만 보여 주는 행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선생님들께

본당 내 또는 거주지역 내, 혼자사시는 노인, 소년·소녀 가정의 집을 파악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예 / 도배하기, 설것이 하기, 빨래하기, 목욕시켜 드리기, 청소하기 등)

이 활동에 학생들이 모두 동의해 지역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활동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또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후배 그룹도 형성해, 신앙의 공동체로 자리잡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기도

주님께 모두 드려요(청소년 성가 350번)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청소년 성가 393번)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본당 중고등학생 사목부 초급 교사학교 자료집/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앨버트 노올런. 분도 출판사)